

시·도 지사후보 연쇄인터뷰

광주시장 민주노동당 오병운

“변화의 에너지 모아내는 진보시장 되겠다”

- 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30년간 재야운동을 했다. 운동을 하면서 광주를 넘어 전국 단위의 사업과 조직도 지휘했다. 그 동안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 담론에 대해 왔다. 2000년부터 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역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고, 2002년 대선 때 권영길 후보 광주지역 선거대책본부장 맡으면서 진보시장의 꿈을 키워왔다.

- 민선 3기 박광태 시장은 경제정책과 관련, 삼성전자 백색가전 이전과 기아차 생산라인 증설 등 투자유치 성과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의 경제정책을 포함, 그동안 시장을 평가한다면.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의 주머니만이 아니라 서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자본과 대기업 육성방안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박광태 시장은 지난 4년간 1등경제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경제지표가 올라갔다고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 졌는가. 비정규직·빈곤층·청년실업률이 더 늘어나면서 서민경제는 오히려 침체됐다. 또 박 시장은 문화로 밥 먹고 살자고 주장하며 건물 세우고 산업단지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 건설사식 마인드로는 문화중심도시도, 복지 광주 건설도, 심지어 광주전 살리기도 기대할 수 없다.

- 열린우리당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화의 전당을 만들기로 하는 등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있다. 또 재작년 패트리엇 미군부대까지 광주에 배치돼 평화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전과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공군기지 이전은 꼭 필요하다.

- 나주혁신도시 건설에 대해 일부에서는 광주 몫을 전남에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나주혁신도시 건설의 올바른 방향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혁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지역사회 혁신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광주·전남이 상생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동혁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공동혁신도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거점이 돼야 한다. 특히 공동혁신도시는 특정지역이 독점하거나 지역사회와 격리된 별도의 '특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하철 적자, 제2순환도로 적자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해결책은.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1호선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체계개선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 2순환도로의 경우 적정 수준으로 통행료를 내리면 통행량이 증가해 통행료 수입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 민노당이 소외계층에 대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아직 수권 정당, 또는 광주시정을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까지는

“지역토착형 중소기업 육성·지원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해야”

▲문화는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표현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거창하고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사람들간 따뜻한 관계를 표현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것을 뜻한다. 이것이 문화중심도시의 키워드가 돼야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전략적 전망없이 개발논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은 위험하다. 문화산업은 엄청난 건물이나 시설을 세우는 식의 골목산업이 아니다. 사람의 문화적 감수성을 기본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문화인프라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문화중심도시 구상은 기본과 알맹이는 빠진 채 아시아문화전당 건설이 전부인 것이다.

- 경제시장, 문화시장 등 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주장하는 모토가 있다. 오 후보가 생각하는 시장상은.
 ▲나는 진보시장이 되고 싶다. 진보는 그동안 반공이데올로기 속에 빨간 색으로 인식돼 왔다. 오랜 기간 지배세력이 진보의 가치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 하지만 진보는 낡고 썩은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참신함, 전진을 의미한다. 또 진보는 기존의 사회현상과 질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의 발전상을 꿈꾸고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광주의 새로운 변화 에너지를 모아내는 진보시장이 되겠다.

- 아시아문화전당 설계를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 바람직한 해결책인지.
 ▲아직도 아시아문화전당 설계 변경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문화에 정치논리와 행정이 간섭하기 시작하면 문화는 사라지고 행정과 정치만 앙상하게 남게 된다.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영원한가, 문화가 영원한 것인가. 현재 설계 당선작에 대한 의견

수렴과 보완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진정으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자가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 광주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 해소책은.
 ▲청년실업 해소는 일자리 창출에 해법이 있다. 대기업 유치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대기업만으로는 청년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졸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다. 그래서 지역 토착형 중소기업 발전전략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광주는 96%가 중소기업이다. 이 중소기업은 구인난·기술난·자금난을 겪고 있다. 산·학·관 연계체계를 구축, 기술력을 지원하고 지역기업의 지원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기금 7천억 중 일정 부분을 확보, 이 지역 대학 출신 고급인력이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고용수당을 지원해야 한다.

- 고속철도 건설 및 무안공항 개항 등과 맞물려 광주공항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으로 나눠 입장을 밝혀달라.
 ▲무안국제공항을 광주권 공항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은 안전이나 소음 문제 때문에 중심도시로부터 20~30km 떨어져 있다. 따라서 무안국제공항을 광주공항과 경쟁관계로 보기보다는 광주권 공항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대신 광주공항의 국내수요는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시켜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

군공항의 경우 전투기 소음으로 인근 주민은 커다란 피해를 당하고

“단체장 자질은 행정경험보다 올바른 철학·가치관이 우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노동당이 아직까지 책임있는 대안 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은 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다시 신발을 조여 매는 각오로 뛰겠다. 하지만 광주시민께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선출해준 1명의 광주시의원과 10명의 국회의원이 보여준 놀라운 활약상이다. 이들은 비록 소수지만 기존 정치권의 낡은 관행 및 특권 문화와 싸우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각계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시민에게 높은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오 후보는 투쟁 경력은 화려하지만 행정 경험은 전무하다. 시장의 자질 및 경력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행정경험이 많으면 좋겠지만, 시장의 자질은 행정경험보다 올바른 철학과 가치관이 더욱 절대적인 기준이다. 우리 정치는 그동안 소위 배경 좋고 연줄 좋다는 일류대 출신이 주도해 온 정치가 아닌가. 행정 경험 많다는 지자체장들이 부패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자치단체장에게는 무엇보다 올바른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하찮게 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있어야 한다. 올바른 역사관과 정열성과 도덕성은 기본 덕목이다. 이런 기본적인 자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정경험이야말로 오히려 지방관력을 타락시키고 지방정치를 후퇴시킨다. 나는 그간 삶을 통해 사리사욕이 아니라 주민을 만드는 시정, 깨끗하고 올바른 시정을 펼칠 책임자임을 보여줬다고 감히 자부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위직기자 jrwi@kwangju.co.kr

결어온 길

민주화운동 선봉 '노동운동가'

오 후보는 1957년 화순 이서에서 5대 장손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광주 조대부중을 졸업한 그는 외형적인 아버지를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5남매의 가장이었기에 상경, 유리공장과 간판공장 등을 전전했다. 오 후보는 1년6개월여 동안의 서울 생활 후 광주로 내려와 조대부고 야간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급사로 일했다. 오 후보는 10년여의 주경야독 끝에 1983년(27세) 전남대 국어교육학과 입학했다.

그러나 교사를 꿈꿨던 대학 생활은 오 후보를 민주투사로 만들었다. 전두환 정권에 항거하며 학생운동의 선봉에 섰던 것. 1985년 총학생회 부활 이후 첫 전남대 총학생회장이 된 오 후보는 경찰의 체포를 피해 광주 수기동의 한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고 구속된다.

1년여의 광주교도소 생활은 오 후보에게 소중한 만남을 가져다 줬다. 고(故) 김남주 시인을 만난 것. 시인은 지식인의 관심과 사랑을 버리고 노동자의 강인함과 투철함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그를 일깨웠다. 그는 출감 후에도 투쟁의 길을 접지 않았다.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홍보국장으로서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으며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 들어 1988년 광주노동연구소 연구원, 이듬해 광주노동교육협회 회장, 1991년 광주노동운동단체 연합회장을 맡는 등 6년여 동안 광주지역 노동운동의 밑거름을 뿌렸다.

민중 연대의 중요성을 절감한 오 후보는 노동자·농민·서민의 연대투쟁을 이끌다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두 번째 옥고를 치른다.

출소 후 오 후보는 서울과 광주에서 재야운동을 계속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권영길 후보 광주선거운동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권에 뛰어 들었다. 그는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 광주시구을 민노당 후보로 출마했다.

공약

오 후보 공약의 핵심은 '빈곤과 차별이 없는 진보 광주 건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우선 경제양극화 해소로 서민경제를 살려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토착형 중소기업 발전전략으로 고용 창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가 그리는 또 하나의 광주는 보육·의료·주택·교육 걱정없는 '서민복지 도시'다. 그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 재정을 30%까지 확충하고 ▲19기 행정동에 공공보육시설을 건설하며 ▲시립병원 설립, 보건소 기능 강화, 노인병원·산재병원 설립 등으로 서민건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방관력을 주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주민자치 광주의 공약' ▲주민소환제·주민발의제·주민소송제 도입 ▲참여예산제 실시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예산감시센터 설치 ▲주민참여형 인사청문회 실시 ▲업무추진비 매월 상세 공개 등으로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설운도

4월 27, 28일

부킹전국 100%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